

인니 편의점 알파마트 올해 1,000개 이상 오픈할 것



□ 주요내용

- 인도네시아 유명 미니마켓 프랜차이즈 '알파마트'를 운영하는 쉰부르 알파리아 트리자야(PT Sumber Alfaria Trijaya Tbk)는 연내 전국에 점포 1,000여 개를 증설할 방침이다.
- 7일 인도네시아 파이낸셜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알파마트 수는 1만 1,115개다. 쉰부르 알파리아 트리자야 세일즈 담당자는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편의점 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 사측은 자카르타 등 인구비율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.
- 사측은 전역에 있는 알파마트를 찾는 고객이 하루 평균 400만 건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목표로 하는 회원 수는 750만~800만 명이다.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쉰부르 알파리아 트리자야의 결산에 따르면 매출은 2014년 대비 16% 증가한 25조 3,760억 루피아(약 2조 3천억원)로 증가한 반면, 순이익은 35% 감소한 2,230억 루피아(약 203억원)였다.

□ 시사점

-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%대로 올라설 것으로 인니 국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,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, 통화정책 완화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. 따라서 작년까지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풀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의점 등 적극적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.

출처 : Jakarta Biz Weekly